

작품설명

이민수

나의 작업은 내면의 감추어진 색을 조형적인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도자에서 장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고 있다.

석고 틀에 다른 색의 흙물을 반복하여 부어서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형태를 만든 후 변형한다.

제작과정은 슬립캐스팅의 장점과 물레 성형의 장점을 취하여 석고 틀을 물레 위에 놓고 빠른 속도로 회전시키면서 이장을 번갈아 붓는 것이 첫 번째 순서인데, 이때 각 층의 두께와 색의 배합, 형태의 정교함 등을 결정하는 것에는 철저한 숙련도와 인내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를 석고 틀에서 꺼내어 반 건조 시킨 후 변형시키고 완전히 마른 다음에 갈아내는 작업으로 성형을 마무리 한다.

각각의 형태는 10-20 개의 매우 얇은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까이서 보면 기하학적으로 절단한 단면에서 여러개의 층이 보여주는 얇은 선들을 볼 수 있다.